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보 도 자 료</h1>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5월 29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담 당 자	• 균형전략팀장 • 담당자	양수영 ☎440-2391 한지현 ☎440-23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모색
 -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첫 회의 열려 -
 - ‘글로벌 톱텐 시티’ 연계한 균형발전 추진 및 인구감소 대응 도모 -

인천광역시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단(TF) 구성에 따른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유관 실·국장 및 경제청, 강화군 행정복지국장, 옹진군 기획예산실장 등이 참석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을 위해 힘을 합쳤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구의 입지·형태·업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 제도다. 신청 대상지역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으로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해당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착수 이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단(TF)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표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연계 추진 방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았다.

추진단은 앞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용역 진행 상황에 따른 중요 논의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장급 실무추진단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묶여 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사진>

